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141-1151

<Brief Report>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정서조절

임 진 현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품행장애성향이 공존하는 청소년들의 정서인식과 정서조절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 435명에게 Zung 우울척도(SDS),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비행 척도, 기분인식 척도(MAS), 특질 상위-기분 척도(TMMS), 정서조절 질문지(ERQ),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AEQ)를 실시한 후, Zung 우울척도 50점과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의 비행 척도 표준점수 63T점을 기준으로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 우울 집단, 품행장애성향 집단, 통제 집단을 선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기분인식 척도의 기분검색 점수는 높았지만, 기분명명 점수는 낮았다. 특질 상위-기분 척도의 정서명료성 점수는 우울 집단이 가장 낮았고, 정서개선믿음 점수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가장 낮았다. 정서조절 질문지의 인지적 재해석 점수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낮았으며,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의 총점과 긍정정서 표현갈등 및 부정정서 표현갈등 점수는 모두 우울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우울-품행장애, 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표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훈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 151-746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Fax : 02-880-5997 / E-mail : hjlee83@snu.ac.kr

청소년기 정신장애를 정서장애와 품행장애의 두 군집으로 주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inkley, 1996),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의 우울증과 품행장애가 높은 정도로 공존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왔다(신윤오, 조수철, 홍강의, 김자성, 1993; Chiles, Miller, & Cox, 1980; Marriage, Fine, Moretti, & Haley, 1986; Puig-Antich, 1982). 이러한 높은 공병율은 우울증과 품행장애가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품행장애 역시 감소시켰고 (Puig-Antich, 1982), 남녀 중학생의 비행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우울로 확인되었다 (곽금주, 문은영, 1993). Cytryn과 McKnew(1972)는 청소년들의 품행장애가 우울 경험을 위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장된 우울증(masked depress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위장된 우울증과 품행장애를 감별할 수 있는 명확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신민섭, 고승희, 1995), 우울한 기분을 외현화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자신의 주관적인 우울 경험을 보고하여 우울이 '위장되어 있다'는 개념은 지지받지 못하였다(Gjerde, Block, & Block, 1988). ICD-10에서는 우울과 품행장애가 공존하는 경우에 '우울품행장애(depressive conduct disorder)'로 진단하지만, '우울품행장애'가 우울증과 품행장애의 공존병리를 나타내는 독립된 진단 단위인지, 아니면 '위장된 우울증' 개념에 부합되는 장애인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울품행장애, 우울증, 품행장애를 구분하기 위해 심리검사 반응 상에서 다차원 척도 방법을 적용한 결과, 우울품행장애의 정서적 특성은 우울증과 유사하지만 우울감이나 내적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으로는 품행장애와 유사한 외현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신민섭, 고승희, 1995). 이는 정서적 특성과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이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서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우울품행장애' 진단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울증과 품행장애의 정서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 장애가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표현하는 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한 개인이 우울하지 않은 개인보다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의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요인이 유의미하게 낮았고(Rude & McCarthy, 2003), 정서의 표현과 억제에 대한 양가성이 높았다(King & Emmons, 1990). 한편, 품행문제가 있는 아동은 정서적 어휘를 인식하는 능력이 낮았고(Speltz, DeKlyen, Calderon, Greenberg, & Fisher, 1999), 특히 부정적인 정서자극에 대한 이해에서 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그러나 자신의 내면화된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갈등적인 결과들이 보고되므로(이수정 등, 2004)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청소년들은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서 중심적 대처와 '기분전환'을 많이 사용하였다(김미례, 홍경자, 양승남, 2002; 신현숙, 구본용, 2001). 또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들 중에서 '문제-감정의 은폐'는 우울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비행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고, '긴장완화' 행동(예, 담배를 피우는 것)은 우울과 비행 모두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신현숙, 구본용, 200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는 Westen(1994)과 Agnew (1992)의 가정과 관련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정

서 특성이 우울감이나 행동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주지만, 각 장애 별 구체적인 정서 특성과 우울과 품행장애가 공존하는 경우의 정서 특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이중고로서 우울과 품행장애성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양식을 알아보고, 이들의 정서 인식과 조절 및 표현 양식이 순수하게 우울이나 품행장애성향만을 나타내는 청소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우울품행장애'가 독립적인 진단단위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과 품행장애성향이 공존하는 집단(이후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은 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은 네 집단 중 정서조절이 가장 부적응적일 것이다. 셋째, 우울 집단은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품행장애성향 집단보다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이 많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2005년 4월에 서울 소재 3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 452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수업 담당교사가 질문지를 실시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명을 제외하고 435명(남 221명, 여 2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균 연령은 16.2세로 범위는 만 16세에서 18세까지였다.

측정도구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Achenbach(1991)가 개발한 청소년 자기보고식-아동행동 평가 척도(Youth Self Report-Child Behavior Check List)를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01)가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119문항이다. 변별력이 낮은 2문항과 적응행동 문항 16개를 제외하고 문제행동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은 101개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비행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비행 척도는 비행행동을 평가하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22점이다. 비행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66에서 .68이었다(오경자 등, 2001).

한국판 Zung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Zung(1965)이 개발한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 생리, 심리적 증상을 기술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현실을 고려하여 6번 문항 "나는 여전히 성관계를 즐긴다"를 "나는 여전히 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보고한 신뢰도는 반분신뢰도 .73-.74, 내적 일관성 .79-.80이었고, BDI와의 상관은 .7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87이었다.

기분인식 척도(Mood Awareness Scale; MAS)

Swinkels와 Guilliano(1995)가 기분 상태에 주

어지는 주의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분검색과 기분명명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기분검색 .88, 기분명명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기분검색 .81, 기분명명 .69였다.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Salovey, Mayer, Golman, Turvey와 Palfai(1995)가 제작한 것으로 총 3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 차원 13문항,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명료성 차원 11문항,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선믿음 차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고 옥수정(200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보고한 내적 일관성은 주의차원 .86, 명료성차원 .88, 개선믿음차원 .82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은 주의차원 .64, 명료성차원 .78, 개선믿음차원 .70이었다.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Gross와 John(2003)이 개발한 척도로서, 정서유발 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재해석 6문항과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려는 정도를 측정하는 억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재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내적 일관성은 인지적 재해석 .85, 정서표현 억제 .7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재해석 .79, 정서표현 억제 .67이었다.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King과 Emmons(1990)가 정서표현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하였다. 총 28문항으로 긍정정서 표현갈등 16문항과 부정정서 표현갈등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평정한다. King과 Emmons(1990)가 보고한 총점의 내적 일관성은 .89, 6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원(1997)이 번안한 문항 중 9번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위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려 한다'를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려 한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은 총점 .93, 긍정정서 표현갈등 .89, 부정정서 표현갈등 .84였다.

집단선발 및 자료 분석

SDS 점수와 K-YSR 비행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 우울 집단, 품행장애 성향 집단, 통제 집단을 선발하였다. 집단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울 집단은 표본의 평균(42.6)과 표준편차(7.0)에 근거해서 SDS 점수가 상위 1표준편차 이상(50점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오경자 등(2001)의 표준화 연구에 근거하여 비행 척도의 표준점수가 63T점(상위 90 백분위; 남자 원

점수 6점, 여자 원점수 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다. 따라서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SDS 50점 이상이면서 비행 63T점 이상, 우울 집단은 SDS 50점 이상이면서 비행 50T 점(남자 원점수 2점, 여자 원점수 1 점) 이하,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SDS 전체 평균(43점) 이하이면서 비행 63T점 이상, 통제 집단은 SDS 점수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 이하(36점) 이하이면서 비행 50T 점 이하로 선발하였다. 그 결과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은 18명(남 8명; 여 10명), 우울 집단은 25명(남 12명; 여 13명),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18명(남 14명; 여 4명), 통제 집단은 48명(남 22명; 여 26명)이었고, 각 집단별 SDS와 K-YSR 비행척도의 평균은 표 1과 같다. SDS 점수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이 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높고,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F(3, 105) = 409.28$, $p < .001$. K-YSR 비행척도 점수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우울 집단, 품행장애성향 집단, 통제 집단보다 높고, 품행장애성향 집단이 우울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F(3, 105) = 148.17$, $p < .001$.

네 집단 간 성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chi^2(3, N=109) = 6.07$, $p = .11$, 쌍별 비교 결과,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품행장애성향 집단, 우울 집단과 품행장애성향 집단, 통제 집단과 품행장애성향 집단 간 성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chi^2(1, N=36) = 4.21$, $p < .05$; $\chi^2(1, N=43) = 3.88$, $p < .05$; $\chi^2(1, N=66) = 5.39$, $p < .05$.

일부 집단 간 성비 차이를 고려해 집단(4) X 성별(2)의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ERQ 인지적 재해석과 AEQ 정서표현양가성 총점에서 유의하였다, $F(3, 101) = 3.20$, $p < .05$; $F(3, 101) = 2.78$, $p < .05$. ERQ 인지적 재해석과 AEQ 정서표현양가성 총점의 집단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3, 101) = 6.03$, $p < .001$; $F(3, 101) = 10.07$, $p < .001$, 성별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01) = 1.26$, $p = .26$; $F(1, 101) = 2.85$, $p = .09$. 두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두 변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제시하고,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던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집단별 우울 척도(SDS), K-YSR 비행척도의 평균점수

	우울-품행 장애성향 (n=18)	우울 (n=25)	품행장애 성향 (n=18)	통제 (n=48)	F	Scheffé
SDS	53.7(2.6)	52.9(2.9)	38.4(2.9)	32.5(2.9)	409.28 ***	1=2>3>4
K-YSR 비행	8.8(3.6)	1.0(0.7)	7.1(1.6)	0.8(0.7)	148.17 ***	1>3>2=4

괄호 안은 표준편차.
Scheffé 검증결과에서 부등호 표시는 평균값이 유의미하게($p < .05$) 더 크거나 작음을 나타냄. 비교의 편의를 위해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을 1, 우울 집단을 2, 품행장애성향 집단을 3, 통제 집단을 4로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결 과

각 집단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기분인식 척도의 기분검색 점수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았고, 기분명명은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낮았다, $F(3, 105) = 4.86$, $p < .01$; $F(3, 105) = 8.12$, $p < .001$. 특질 상위-기분 척도의 정서주의 점수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F(3, 105) = 0.96$, *ns*, 정서명료성은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낮았으며, 우울 집단이 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낮았다, $F(3, 105) = 19.19$, $p < .001$. 정서개선믿음은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낮았고, 우울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낮았다, $F(3, 105) = 15.58$, $p < .001$. 정서조절 질문지의 인지적 재해석 점수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낮았고, $F(3, 105) = 5.10$, $p < .01$, 정서표현 억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F(3, 105) = 1.93$, *ns*. 인지적 재해석 점수는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남자 청소년은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다른 세 집단보다 낮은 반

표 2. 집단별 기분인식 척도(MAS), 특질 상위-기분 척도(TMMS), 정서조절 질문지(ERQ),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AEQ)의 평균점수

	우울-품행 장애성향 (n=18)	우울 (n=25)	품행장애 성향 (n=18)	통제 (n=48)	F	Scheffé
MAS						
기분검색	16.7(5.3)	16.2(4.0)	14.5(3.9)	13.1(3.8)	4.86**	1=2>4
기분명명	15.4(4.0)	14.3(3.7)	17.4(2.5)	18.3(3.6)	8.12***	4>1=2
TMMS						
정서주의	43.1(5.4)	40.7(6.1)	43.3(5.2)	42.1(5.7)	0.96	
정서명료성	32.6(6.3)	30.7(4.7)	37.2(5.7)	40.0(5.3)	19.19***	4>1,2 3>2
정서개선믿음	15.9(4.2)	17.0(4.2)	19.9(3.6)	22.2(3.9)	15.58***	4>1,2, 3>1
ERQ						
인지적 재해석	21.1(8.9)	24.5(6.2)	25.1(6.7)	28.3(6.5)	5.10**	4>1
정서표현 억제	14.5(5.0)	16.8(4.7)	13.1(5.3)	15.0(5.1)	1.93	
AEQ	73.8(13.4)	87.1(18.8)	71.8(20.6)	63.5(19.2)	8.99***	2>4
긍정정서표현갈등	42.8(8.3)	49.5(11.4)	40.3(13.2)	34.1(11.1)	10.88***	2>4
부정정서표현갈등	30.9(6.3)	37.7(8.6)	31.5(9.8)	29.4(9.1)	5.05**	2>4

괄호 안은 표준편차.
Scheffé 검증결과에서 부등호 표시는 평균값이 유의미하게($p < .05$) 더 크거나 작음을 나타냄. 비교의 편의를 위해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을 1, 우울 집단을 2, 품행장애성향 집단을 3, 통제 집단을 4로 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면에, $F(3, 52) = 6.34$, $p < .001$, 여자 청소년에서는 집단 주효과는 유의미했으나, $F(3, 49) = 2.92$, $p < .05$, 사후 쌍별 비교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표현 양가성 질문지의 총점과 긍정정서 표현갈등 점수 및 부정정서 표현갈등 점수는 모두 우울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F(3, 105) = 8.99$, $p < .001$; $F(3, 105) = 10.88$, $p < .001$; $F(3, 105) = 5.05$, $p < .01$. 정서표현 양가성 총점은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의 남학생은 우울 집단의 남학생보다 총점이 낮은 반면에, 여학생은 통제 집단만 우울집단보다 낮았다, $F(3, 52) = 7.41$, $p < .001$; $F(3, 49) = 4.91$, $p < .01$.

결과를 요약하면, 정서인식과 관련하여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은 자신의 기분을 자주 검색하지만 자신의 기분이 무엇인지를 명명하는 능력이 낮았고, 특히 우울 집단은 정서에 대한 명료성이 가장 낮았다.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정서개선에 대한 믿음이 네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능력이 통제 집단보다 낮았다. 정서표현과 관련하여 우울 집단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에서 표현과 억제 사이의 갈등이 통제 집단보다 높았다. 한편,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각 종속변인들에서 통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의 인식 및 조절 양식이 우울증 및 품행장애와 관련된다는 가정 하에, 우울과 품행장애성향이 함께 나타나는 청소년의 정서인식과 조절 및 표현 특성이 우울 또는 품행장애성향만을 나타내는 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은 자신의 기분을 자주 검색하지만, 이 기분이 어떤 종류인지 명명하는 능력과 자신이 느끼는 정서를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서 명료성이 낮았다. 기분검색 과정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Swinkels & Guilliano, 1995),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의 기분검색 점수가 높은 것은 이들 집단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기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주의를 기울이고 검색하는 집단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잦은 기분검색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은 기분 명명 능력과 정서명료성이 낮아서 자신이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이 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들이 자신의 정서에 대해 혼란을 느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우울 집단은 정서에 대한 명료성이 가장 낮아서 정서인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양식과 관련하여,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정서개선믿음이 네 집단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정서조절 방략을 사용하는 것에 취약하거나, 정서조절에 실패했던 기존의 경험에 의해서 개선에 대한 믿음이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정서조절 질문지의 인지적 재해석 수준이 통제 집단보다 낮아서 선행사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경험

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개선믿음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의 정서조절 양식이 가장 부적응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특히, 우울-품행장애성향을 나타내는 남자 청소년이 정서조절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정서표현 양식에서 우울 집단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모두 표현과 억압 사이의 갈등이 통제 집단보다 많았는데, 이는 우울 집단이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품행장애성향 집단보다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이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우울 집단의 정서인식 능력과 연관시켜 볼 때, 자신의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표현을 방해하여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이를 쉽게 표출하였다. 이는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우울 집단이 정서인식 양식은 유사하지만 정서표현 양식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울품행장애가 품행장애와 유사하게 외현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신민섭, 고승희, 1995)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정서인식과 조절 및 표현 양식에서 통제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품행장애 아동이 정서적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이 낮다는 연구(Speltz et al., 1999)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Speltz 등(1999)과 다르게 자신의 정서를 명명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는데, 품행장애성향 집단은 자신의 정서 경험을 쉽게 분노로 명명할 수 있으므로(Lochman, Whidby, & FitzGerald, 2000) 통제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품행장애성향만을 나타내는 청소년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낮지만(이수정 등, 2004),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 조절, 표현하는 능력은 손상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과 품행장애성향 집단의 정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품행장애의 정서 특성 연구 시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가 공존하는 집단과 순수하게 품행장애만을 나타내는 집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품행문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내면화된 정서표현력 연구들에서 갈등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수정 등, 2004)은 우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우울과 품행장애성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청소년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정서 조절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다. 우울 문제만을 나타내는 청소년은 정서인식 능력이 가장 취약하였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이 많았다. 품행장애성향만을 보이는 청소년의 정서 특성은 통제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비록 준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 우울 집단, 품행장애성향 집단 간의 정서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우울품행장애'가 독립된 진단단위로서의 타당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의 K-YSR 비행척도 점수가 품행장애성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우울-품행장애성향 집단이 네 집단 중 가장 부적응적인 집단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들 집단의 특성에 맞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는 자신의 정서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명명하고 정서를 명료화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인지적 재해

석을 연습하는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일반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임상집단이나 비행으로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집단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과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한 질문지들이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선행사건을 고려하여 정서경험을 수집하는 반구조화된 형식의 정서일기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변인에서 나타난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후속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증과 품행장애성향이 공존하는 청소년의 정서 특성에 대한 선도적인 탐색적 연구이며, 치료적 개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9-43.

김미례, 홍경자, 양승남 (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청소년상담연구, 10(1), 107-125.

손재민 (2005). 정서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인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민섭, 고승희 (1995). Multidimensional Scaling을 이용한 아동기 우울증, 우울증적 품행 장애, 그리고 품행 장애간의 진단분류적 접근. 신경의학, 20, 94-106.

신윤오, 조수철, 홍강의, 김자성 (1993). 소아정신과 입원 환자의 공존질병. 소아청소년정신의학, 4, 91-97.

신현숙, 구본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189-225.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 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고위험 비행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13.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 95-116.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Chiles, J., Miller, M., & Cox, G. (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7,* 179-183.

Cytryn, L., & McKnew, D. H. (1972). Proposed classification of childhoo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9,* 149-155.

Gjerde, P. F., Block, J., & Block, J. H. (1988). Depressive symptoms and personality during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in the externalization-internalization of symptom ex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475-486.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s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Lochman, J. E., Whidby J. M., & FitzGerald, D. P. (2000). Cognitive-behavioral assessment and treatment with aggressive children. In P. C. Kendall (Ed.),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 (2nd ed.).* New York: Guilford.

Marriage, K., Fine, S., Moretti, M., & Haley, G. (1986).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687-691.

Puig-Antich, J.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118-128.

Rude, S. S., & McCarthy, C. T. (2003). Emotional functioning in depression and depression-vulnerable college students. *Cognition and Emotion, 17,* 799-806.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Turvey, C., & Palfai, T.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peltz, M. L., DeKlyen, M., Calderon, R., Greenberg, M. T., & Fisher, P. A. (1999). Neur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Behaviors of Boys With Early Onset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8,* 315-325.

Swinkels, A., & Guil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Attention, directed toward one's mood sta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34-949.

Westen, D. (1994).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s to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62,* 643-667.

Winkley, L. (1996).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London: Cassell.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원고접수일 : 2005. 12. 30
게재결정일 : 2006. 8. 10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141-1151

<Brief Report>

Recognition and Regulation of Emotion in Adolescents with Depressive-Conduct Problem

Jinhyun Lim Hoon-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435 high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and classified into the four distinct groups: depressive-conduct problem group, depression group, conduct problem group, and control group. In order to study the group differences in recognition, regulation, and expression of emotion, all participants were administered with the Mood Awareness Scale (MAS), the Trait Meta-Mood Scale (TMMS), th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and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depressive-conduct problem group and the depression group showed lower emotion recognition levels than the control group. The depressive-conduct problem group appeared to have the lower level of cognitive reappraisal as an emotion regulation strategy than the control group. The depression group was found to have more conflict between expressing and suppressing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tha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group difference between the conduct problem group and the control group.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depressive conduct disorder, emotion recognition, emotion regulation, emotional expression.